

# 남북한 MG세대의 동질성: 북한에도 BTS가 있을까?



강동완  
(동아대 교수)

# 북한과 중국이 맞닿은 북중국경 1,400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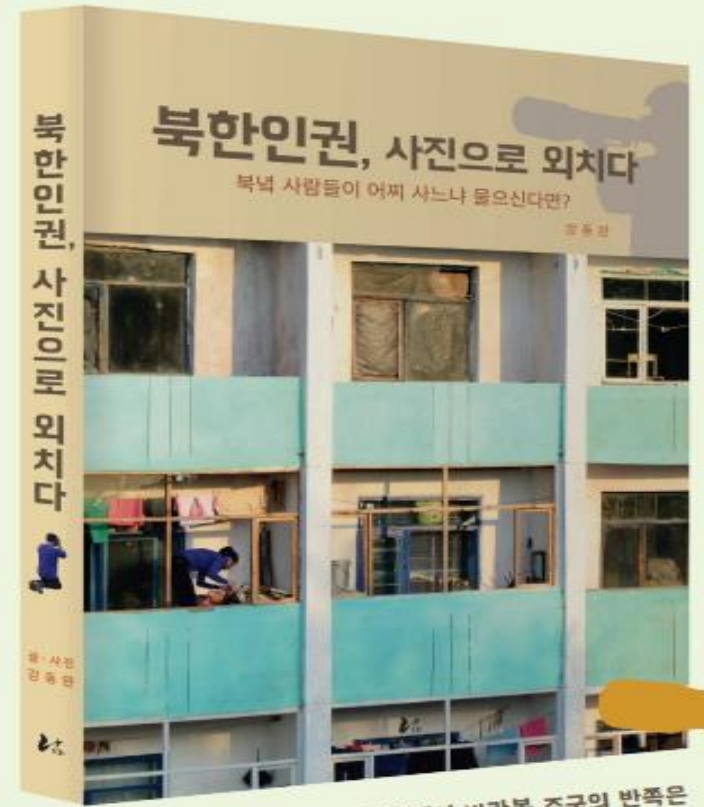
사진은 영원한 기록과 기억이 될 수 있기에,

**북중국경에서 초망원렌즈로 촬영한 북한주민의 일상**

# 북한인권, 사진으로 외치다

북녘 사람들이 어찌 사느냐 물으신다면?

이 책은 북중국경 1,400km를 달리며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 북한지역을 촬영한 사진을 북한인권이라는 주제로 추려내고 엮었다. 사진은 영원한 기록과 기억이 될 수 있기에,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는 북녘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했다.



북중국경에서 바라본 조국의 반쪽은 시리도록 낡고 차가웠다. 그곳에도 분명 사람이 살고 있을 터인데...



# 남북한의 생활상 차이와 세대간 인식의 격차



사진출처: <평양 882.6km: 평양공화국 너머 사람들> (너나드리출판사, 2020)



사진출처: <그들만의 평양> (너나드리출판사, 2019)



한겨울 영하 30도의 추위에 압록강은 모두 얼었고, 강변에 나와 빨래를 하는 북한 여성들

사진출처: <평양 882.6km: 평양공화국 너머 사람들> (너나드리출판사, 2020)



사진출처: <평양 882.6km: 평양공화국 너머 사람들> (너나드리출판사, 2020)



북한의 마을에는 대부분 우물이 설치되어 있음(빨간원).  
우물을 사용하거나 압록강, 두만강에서 물을 길어가는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음.  
북한의 상하수도 시설의 열악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사진출처: <평양 882.6km: 평양공화국 너머 사람들> (너나드리출판사, 2020)



**세상에 부럼없어라?:  
농촌동원에 나선 북녘의 아이들**

.....

사진출처: <평양 882.6km: 평양공화국 너머 사람들> (너나드리출판사, 2020)



**변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장마당의 몸부림**



● 사진출처: 평양 882.6km(너나드리출판사, 2020)



초고화질 단독공개

김정은이  
없애려는  
북한장마당

이제 인민은  
어떻게 사니!

4:15



[평양 밖 북한 | 북중국경 탐사] #50 (초고화질 사진영상) :  
북한장마당의 실체(김정은에게 고함 / 인민들이 먹고 ...

통생통사 강동완TV · 조회수 4.5천회 · 4주 전

## 장마당의 역할

북한에서 장마당은 외부정보가 확산되는  
통로로서,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북한당국 입장에서는  
단속과 통제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주민들의 생존터라는 이중적 성격

**한국 걸그룹의 노래를 표절한 북한 공연:  
어느 세대의 취향을 의식한 것인가?**

.....



# 북한의 음악정치

김정일

음악이 때로는 수천, 수만의 총포를 대신했고  
수백 수천만의 식량을 대신했다



김정은

.....→ 김정일의 음악정치를 계승하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김정은식 열린음악정치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삼지연관현악단 등)

## ●혜성처럼 나타나 첫막을 올린 공연

- ✓ 주체조선의 100년대가 시작되는 해에 문학예술분야에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모란봉악단을 친히 조직(노동신문 201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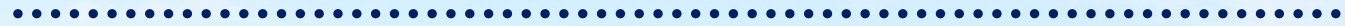
## ● 한국 걸그룹 노래 표절과 새세대들의 취향

- ✓ 2023 1월 신년경축공연에서 북한 신인가수 정홍란이 부른 우리를 부러워하라 곡이 여자친구의 핑거팁 표절
- 기성 선전가요를 K-pop과 유사하게 편곡, 이외에도 국가를 리듬 앤드 블루스(R&B) 형식으로 편곡하기도 함.

**<두 곡의 음이름을 같은조로 비교>**

<b>&lt;여자친구의 핑거팁&gt;</b>	<b>&lt;정홍란의 우리를 부러워하라&gt;</b>
FGFFG Bb GFG	FGFFG BbAG
FGFFG BbGCBb	FGFFG BbCBb
FGFFG BbGFG	FGFFG BbGFG
FGFFGAAA	FGFFGAAA

# **북한 내 한류 유입과 새세대**





# 남한 영상물 시청과 의식변화: 정치의식 변화

## 남한에 대한 환상과 동경

- 흰쌀밥에 대 여섯가지 반찬이 오르는 밥상
- 부부방, 부모방, 아이들 방이 따로
- 장면마다 바뀌는 옷, 배우의 피부, 길거리 모습
- 여성이 운전하는 장면, 천국과 같은 놀이공원

## 지도부에 대한 인식변화

- 이렇게 못 사는 이유가 다 지도자 때문..
- 거지, 노숙자 없는 남조선
- 나는 왜 일한만큼 다 가져갈 수 없는가

## 정치의식 변화

- 북한 당국의 교양사업과 전혀 다른 남조선 모습
- 나도 저런 나라에서 한번 살아 봤으면...

# ● 남한 영상물 시청과 장마당 세대의 의식변화

북한 체제 변화?

[형광등 불 밝히기]

경제난 가중  
새 세대의 증가

일탈행위  
증가

저항문화  
형성

정권에 대한  
불만 확산

상품유통에 따른  
시장의 확대

부정부패로 인한  
경계허물기

북한당국 선전에 대한 거짓 인지  
지배구조에 대한 냉소, 무지, 반감

남한의 풍요로움과 자유에 대한  
동경, 모방욕구

북한 주민들의 남한 영상물 시청, 한류 확산

**북한 제품 디자인 복제:  
세대별 취향의 반영인가?**





# ● 서해5도에서 북한쓰레기를 줍다 (너나드리 출판사, 2021)

메이드 인 북한 - 서해안의 평양마켓

원대한김일성-김정일주의만세!

2022 세종도서 교양부문

서해5도에서

브랜딩과 디자인으로 북한읽기

강동완

북한쓰레기를 줍다



● 서해5도에서 북한쓰레기를 줍다 (너나드리 출판사, 2021)



# ● 서해5도에서 북한쓰레기를 줍다 (너나드리 출판사, 2021)



# ● 서해5도에서 북한쓰레기를 줍다 (너나드리 출판사, 2021)

## 한국 라면과 유사한 디자인: 어느 제품이 메이드 인 북조선인지?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의 디자인이 서로 비슷한 것도 있지만, 한국산 라면 제품과 비교할 때 마치 디자인을 그대로 도용한 듯한 제품도 있다. 한국산 라면 포장지에 인쇄된 '황성' 등의 단어 외에 캐릭터나 디자인만 보면 어느 제품이 각각 남북한인지 구분조차 어렵다.

한국 <농심> '신라면'과 북한 <라선명선종합가공공장>의 '소고기맛 즉석국수'의 포장지는 색상과 디자인이 비슷하다. 한국 라면 공장의 역사가 거의 70여 년이 다 되어가니, 아무래도 북한이 남한 제품의 디자인을 카피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국산 라면이 북한 제품을 카피한 것이라면?

2월 북한인물 관련 인기

246



북한 <라선명선종합가공공장>의 '소고기맛 즉석국수'

한국 <농심>의 '신라면'



북한의 '소고기맛 즉석국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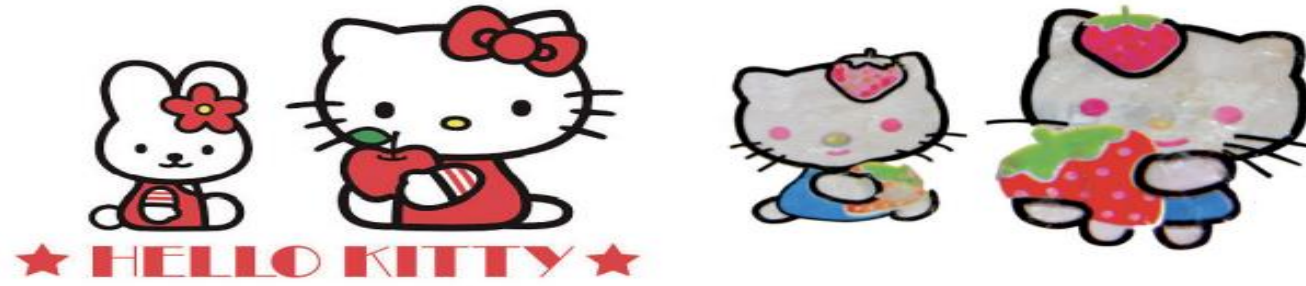


한국 <삼양식품>의 '소고기라면'

서해5도에서 북한쓰레기를 줍다



# ● 서해5도에서 북한쓰레기를 줍다 (너나드리 출판사,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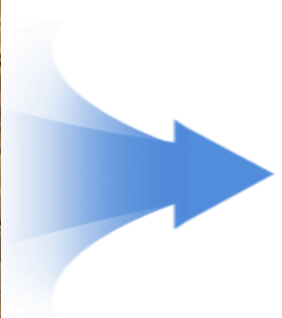
헬로키티 캐릭터 원본

<평양곡산공장> '딸기향 크림속사탕' 포장지 캐릭터

043



● 2024년 4월 백령도에서 수거



•북한: 매운닭고기짜장면  
•남한: 불닭볶음면



# ● 2024년 5월 연평도에서 수거



•북한의 소독용물수건  
표지와 일본 리락쿠마  
캐릭터



# ● 최근 북한제품 디자인에서 보는 세대별 취향





## ● 2024년 5월 연평도에서 수거



•북한에서 생산한 코카콜라 제품 디자인

# **북한 의약품 실태:**



# ● 서해5도에서 북한쓰레기를 줍다 (너나드리 출판사, 2021)

코코아향 탄산단물



조선중앙TV에서 소개한 8월풀 관련 선전영상



# 서해5도에서 북한쓰레기를 줍다 (너나드리 출판사, 2021)

47

## 치솔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지난 2011년 7월 14일 <평양일용품공장>에서 '서리꽃' 치솔을 대량으로 생산한다고 소개했다. 대량생산을 시작한 '서리꽃' 치솔은 소비자들이 솔의 세기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센 치솔에는 빨간색 솔, 조금 센 치솔에는 녹색이나 청색 솔로 구분해 판매한다고 전했다.

최근 로동신문 기사(2021년 3월 15일자)를 보면 <평양일용품공장>을 '본보기공장'으로 앞세우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평양일용품공장은 원료, 자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일부 공장은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주운 서리꽃 치솔은 모두 11종으로 빨간색 5종과 파랑색 5종 그리고 노란색 1종이다. 별도의 포장지 없이 치솔에 '서리꽃'이라고만 새겨져 있기에 구체적인 상품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239 북한일품 헌신함기

382

383

383

서해5도에서 북한쓰레기를 줍다



● 센 치솔



● 조금 센 치솔



● 코로나19시기에 집중적으로 발견



# ● 서해5도에서 북한쓰레기를 줍다 (너나드리 출판사, 2021)



## 구충알약

〈조선태성무역회사〉에서 생산한 '구충알약' 제품도 눈에 띈다. 〈아베르멕틴 구충알약〉이라고 쓴 이 약은 '장내기생충성질병에 쓴다'고 표기되었는데, 한번에 2알씩 식후 2-3시간 지나서 하루 한번 먹는다고 설명되어 있다.

## 아베르멕틴 구충알약 포장지



# ● 서해5도에서 북한쓰레기를 줍다 (너나드리 출판사, 2021)



# ● 서해5도에서 북한쓰레기를 줍다 (너나드리 출판사, 2021)





# ● 서해5도에서 북한쓰레기를 줍다 (너나드리 출판사, 2021)

343

조성     디아스타제 0.01g, 판크레아틴 0.01g, 보리길금 0.12g, 사탕 0.25g  
쓰는데   만성위축성위염, 만성취장염, 만성간염, 설사증 등 각종 소화장애에 씁니다.  
쓰는법   3살이하의 어린이는 1~2알, 4~5살은 3알, 그이상은 4~5알씩 하루 세  
          번 먹습니다.  
보관조건 5~15°C의 어둡고 서늘한 곳  
쓰는 기간 1년  
계열번호



● 서해5도에서 북한쓰레기를 줍다 (너나드리 출판사, 2021)



# ● 서해5도에서 북한쓰레기를 줍다 (너나드리 출판사, 2021)



347

멸균/EO

국규 3964-2:2003

사용기간 3년

무균 / 무열원 / 무독성

주소 평양시 락랑구역 승리 2동

포장이 파손된 제품은 사용하지마십시오.

재리용하거나 재멸균하지 마십시오.

# **북한 마을의 병원**



사진출처: <평양 882.6km: 평양공화국 너머 사람들> (너나드리출판사, 2020)



사진출처: <평양 882.6km: 평양공화국 너머 사람들> (너나드리출판사, 2020)



사진출처: <평양 밖 북조선> (너나드리출판사, 2018)



사진출처: <평양 밖 북조선> (너나드리출판사, 2018)

부전리 인민병원





# 함경북도 삼봉세관 옆: 삼봉철도병원



함경북도 삼봉세관 옆: 삼봉철도병원

